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6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·佛, 불법이민 시도 선박 집중 단속

- 6.1 현지 언론은 영국과 프랑스 국경수비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국行 불법이민선 단속을 펼쳐 10척의 선박을 적발했으며, 앞으로도 양국 합동 단속작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

미주

○ 美, 비자 신청자에게 SNS·이메일 계정 제출 의무화

- 6.2 BBC 방송은 美 국무부가 6.1부터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위해 비자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, 이메일 주소, 전화 번호, 해외여행지, 강제추방 이력 등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보도

* 기존에는 테러조직 점령지역을 여행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 신원조사 실시

○ 美, 모의폭격훈련 직후 이란에 대화 제의

- 6.2 AP통신은 미국이 걸프지역에서 이란을 겨냥한 모의 폭격훈련을 실시(6.1)한 직후 「폼페이오」 美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“이란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”고 언급하였으나, 이란은 “미국의 잘못된 접근방식이 계속된다”며 협상을 거부했다고 보도

아·태평양

○ 아프간, ‘시민평화행진’을 통해 탈레반에 내전종식 요구

- 6.2 뉴욕타임즈는 아프간 주민 30여명이 직접 탈레반에 내전종식을 요구하기 위해 헬만드지역부터 탈레반 장악지역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, 탈레반 측은 정부와 미국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며 비판

○ KAIST, 위조 GPS신호 이용한 ‘안티드론’ 기술 개발

-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은 불법드론에 위조된 GPS 신호를 보내 납치하는 안티드론 기술(GPS Spoofing)을 개발했으며, 특히 GPS 안전 모드가 활성화된 드론에도 적용^{*} 가능해 불법드론 제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주요 상업용 드론의 GPS안전모드 분석을 통해 드론별 납치기법 설계

○ 인도네시아, 경찰초소 겨냥 자살폭탄테러 발생이후 경계 강화

- 6.4 현지 언론은 인니 중부 자바주 소코하르조 경찰초소를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으며(테러범만 부상), 경찰은 ISIS 등 테러조직과의 연관성을 수사중인데, 지난 주부터 시작된 라마단 종료 기념 명절기간 추가 테러 발생에 대비해 경계 강화중이라고 보도

* 경찰은 범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기폭장치, 황·염소산칼륨 혼합물 등 압수

중 동

○ 사우디, 아랍권 국가의 극단주의테러 공동대응 촉구

- 5.30 현지 언론은 사우디 외무장관이 아랍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모임에서 중동內 테러행위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을 촉구했다고 보도

* 지역내 긴장완화 노력을 위한 걸프협력회의(GCC)와 아랍연맹(AL) 정상회의 예정

○ 이슬람권, 美 중동평화안 발표 앞두고 反美 선언

- 6.1 AP통신은 미국이 親이스라엘 중동평화안 발표(6.25)를 앞둔 가운데 이슬람협력기구(OIC, 57개국)가 미국의 편향적인 중동정책을 규탄하는 ‘메카선언^{*}’을 발표했다고 보도

* △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 반대 △美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비난
△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영토 주장 거부 △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지지

2013년 아프가니스탄 연쇄자폭테러

- '13.6.6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나토군 최대기지인 칸다하르 공군기지 인근 주차장에서 2차례 연쇄 자폭테러가 발생, 22명 사망·50여명 부상
 - 첫 번째 테러범은 폭탄이 장착된 오토바이를 이용, 대기중이던 공군기지 군수품 공급차량의 운전자 및 보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폭하였고
 - 1차 폭발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인파가 몰려들자 다른 테러범 2명이 인파를 대상으로 2차 자폭테러를 자행
- 탈레반은 同 테러 발생前 지속적으로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군에 도움을 주는 트럭기사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왔으며
 - 테러 직후 인터넷을 통해 “외국인 테러분자 꼭두각시들이 우리의 순교적 공격으로 숨졌다”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
< 탈레반(Taliban) >

- (결성) 아프간에서 「나지불라」 공산정권이 붕괴('92.4)된 이후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‘물라 오마르’가 이슬람 종교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'94.8월 결성



※ 테러단체 지정 : '13.5월 캐나다(UN·美·英 등은 평화협상을 고려 테러단체로 미지정)
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 전역 및 파키스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주요도시에서 정부청사·국제기구 등 대상 폭탄테러, 기타 지역에서 연합군 및 아프간 군·경 대상 폭탄테러·매복공격 주력
- (주요테러) '11.2월 와르ಡ크에서 미군헬기 공격으로 특수부대원 등 30명 사망, '15.8월 카불에서 미군 용역업체차량 대상 자폭테러로 미국인 등 12명 사망